

예쁜 얼굴을 가진 전 세계 도서들을 소개합니다



북디자인은 '책의 얼굴'을 만드는 작업이다. '시각 이미지'가 중시되는 시대에 독자를 텍스트의 세계로 이끄는 매력적인 '얼굴'을 창조하는 것이 북디자이너들의 임무이자 최대 고민. 이같이 전 세계 북디자이너의 노력으로 창조된 아름다운 도서가 2003년 서울국제도서전에서 전시된다. 독일북아트재단의 협조로 마련된 이번 특별전에는 1991년부터 2002년까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Schnste Bcher aus aller Welt〉으로 선정된 도서 155종이 소개된다. 1991년에 처음 개최한〈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콘테스트는 6명의 국제심사위원들에 의해 〈황금 활자상die Goldene Letter〉을 선정한다. 그리고 열악한 출판 환경에서도 훌륭하게 제작, 디자인된 도서에 한해 특별상을 수여하며 북디자인계의 경향을 짚고 미래를 가늠하는 기회도 갖는다. 이 도서들은 라이프치히 도서전의〈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전시와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의〈국제 북아트 디자인〉특별전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공개된다.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이번 특별전은 북디자인의 세계적 경향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북 디자이너와 출판관계자,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 전시회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디자인의 도서들이 탄생되고, 우리만의 권위 있는 북디자인상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김정연 기자